

국토부 제2공항 ‘지속’ 방향은 ‘검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 제2공항 명시
“환경요인 등 고려해 제2공항 추진 방향 검토”
5차 계획 ‘조속 추진 2025년 개항’서 한 발 후퇴

국토교통부가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 등 공항별 개발 방향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제주지역 공항 혼잡도를 개선하고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선 ‘제주 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경 개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 이 불투명해지자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돌려받은 평가서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가 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협의를 요청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객의 경우 2025년 1억7000만명에서 2050년엔 2억7000만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아쉬운 연휴의 끝자락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에서는 낚시체험 어선에 오른 관광객들이 낚시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2007년 도입 후 15년만에
1월부터 경·소형도 적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지 15년 만에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대형자동차(승용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적재량 2.5t 미만·총중량 10t 이상)를 시작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중형자동차(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t 초과·총중량 3.5t 이상)로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중·대형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소형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도입된지 15년만에 전차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되는 경·소형차는 승용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가 포함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 SNS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명의 이전 등록할 경우 차

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차고지 확보명령이 2차에 걸쳐 고지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고지증명 제외대상은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관련법 적용) ▷장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윤형기자

제주 8개 공공기관 29명 선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 29명을 선발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8개 도 산하 공공기관별 선발 인원은 ▷제주도개발공사 6명 ▷제주에너지공사 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명 ▷제주문화예술회관 2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명 ▷서귀포의료원 7명 ▷제주테크노파크 7명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 오후 6시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jeju.incruit.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또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원서 제출은 불가능하다.

이상민기자

제주 9급→5급 23년 7개월 소요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분석
세종, 17년 4개월 가장 짧아

제주 지방직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23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4년 4개월이었으며, 9급에서 8급 승진까지 2.3년, 8급에서 7급은 3.8년, 7급에서 6급은 8.1년, 6급에서 5급 승진까지는 10.2년이 소요됐다.

제주지역은 9급에서 5급 23.7년, 9급에서 8급 2.3년, 8급에서 7급 3.7년,

7급에서 6급 7.7년, 6급에서 5급은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4개월이 걸려 소요기간이 가장 짧았고, 전북은 26년 3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지자체 간 최대 9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승진소요 연수는 전국적으로 ▷2019년 25.4년, ▷2018년 26.6년, ▷2017년 27.6년, ▷2016년 28년으로 점차 단축됐다.

이영 의원은 “지자체별 여건이 다르지만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인력 현황, 규모 등을 검토해 승진소요 양극화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국무총리 표창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 15개를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도는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 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발표는 노사문화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부분에는 울산광역시, 충북 옥천군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 부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전 대덕구, 전남 목포시, 경상북도경창청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상호신뢰, 소통과 협력의 건전노사문화 구현을 목표로 노사업무를 추진하고 노무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직노무담당자 전문관 지정운영, 노사공동 공직자 노사관계 진단 설문조사 실시 등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시 1200명 대상 아동급식 한시 지원

2억여원 확보… 10~12월 운영

서귀포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들을 사전에 발굴, 아동급식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차추경에 2억3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4인가구 253만원) 가구의 아동 등이다.

시는 이번 한시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이 신청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적극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희망자는 집중신청 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진작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균 발육을 촉진함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옥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탱이 감글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영인 H·P 010-2633-5349